

## 크로스로드 특강 (2)

# 초대교회로 한국 교회를 읽다

– 변방성, 인종주의, 타자

2020년 6월 22일 (월)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 교회사에서 던져야 할 질문들

## 1. 시대구분의 적확성 문제

- ✓ 초대교회 - 중세교회 - 종교개혁 - 근, 현대 교회
- ✓ 위 구분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 - 동일 언어와 동일 문화권

## 2.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교개혁

- ✓ Confessional straitjacket - 환원적 방법론
- ✓ 과연 종교개혁은 신학적 이슈로 발생했는가?
- ✓ 종교개혁기 'Ad fontes' - 지향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 ✓ 오늘 교회가 돌아갈 모습은 무엇인가?

## 3. 인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교개혁

- ✓ 종교개혁기 가장 큰 이슈 “자본주의 이행논쟁”
- ✓ 중세 말의 이슈와 종교개혁기 이슈의 공통 분모 “자본” - 면죄부, 예정설
- ✓ 봉건제에서 국민국가 - 국가주의 논쟁

## 4.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 국가, 사회 속의 제도 교회의 역할 논의

# 교회를 다시 정의한다

## 1. 역사적 제도교회, 민족과 계급

- ✓ 교회의 회복은 이상적인 초대교회라는 허공 속의 상상의 이미지를 찾는 데서 출발해서는 곤란
- ✓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터를 디디고 있는 ‘땅의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

## 2. 전통의 종교, 대중의 종교

- ✓ 대중들의 삶 속에 먼저 광범위하게 퍼진 개념들이 제도 교회가 수용
- ✓ 전통 형성의 주체로서 교회의 관념. ‘기독교’라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를 유효하게 하는 힘, 정의를 만들고 추진, 결정하는 총체적 힘이 교회에 있음을 선포.

## •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고찰할 것인가?

- ✓ 313년 - 교회와 국가의 관계
- ✓ 1215년 - 천상의 제도 완성
- ✓ 1789년 (1962년) - 사회 속에서 교회의 지점, 역할 재고

# 초대교회에서 고민할 지점들

## 1. 돌아가야 할 이상으로서의 초대교회

- ✓ 중세 제도교회에 대한 반발
- ✓ 중세교회신학적 일탈에 대한 반발인가? 교회의 구조적 한계의 결과물인가?

## 2.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관관계

- ✓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였는가?
- ✓ 질문 뒤집기 - 왜 로마는 기독교를 수용했을까?

## 3. 신학적인 관점

- ✓ 라틴 교회의 전통 고수에서 헬라 교회의 전통의 회복
- ✓ 종교개혁은 라틴어 성서 (vulgate)의 오류 극복과 헬라어 성서 연구로 촉발
- ✓ 라틴 교회와 동방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4.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의 교회

- 오늘의 교회, 컨텍스트 속에서 읽기

# 구약시대 말엽의 소아시아 세계의 변화

1. 구약시대에 말엽부터 일련의 제국들의 지배 (앗수르-바벨론-바사-헬라-로마)
  - ✓ 첫 번째 제국 앗수르의 영향: 공식언어로 아람어. 그러나 유대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앗시리아는 유대를 침범해 예루살렘 점거. 열왕기하에 나오는 대로 방어자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함. (열왕기하 18장 26절)
  - ✓ 앗시리아 왕국 이후 바벨론 점령기: 바벨론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 이들은 처음으로 아람어를 이해하고, 결국 그들의 언어로 수용.
  - ✓ 페르시아 점령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아람어를 공식언어. 페르시아는 인도유럽어족으로 다름. 행정적 목적에서는 아람어.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람어가 구어.
  - ✓ 유대인들에게 성경적 히브리어는 완전히 소실. 성전 예배시 언어로만 사용.
  - ✓ 히브리어는 예배에서, 일상생활에서 아람어.
2. 알렉산더 제국
  - ✓ 알렉산더 제국 페르시아 왕국 멸망시킴. 터키, 이집트, 인도까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후 제국의 분열. 프톨레미(Ptolemy): 이집트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지배. 셀루쿠스(Selucus): 앗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점령.
  - ✓ 이집트의 프톨레미의 유대 지배: BC 300년부터 대규모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민. 디아스포라(diaspora) 커뮤니티 형성

# 디아스포라 유대인 - 변방성

1. 헬라인들: 현대 개념으로 그들은 혈통적 인종주의자 아님. 대신 문화적 인종주의자. 헬라어 말하고, 헬라 문화 따르며 동화되는 자들은 헬라인.
2. 유대인들: 종교 유지하며 지중해, 그리스, 이란, 중앙아시아 등 헬라문화권 정착  
 혈통적으로 인종주의자(ethnically racist)
  - ✓ 헬라인이 유대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유대인이 헬라화 되기는 쉽다.
  - ✓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면 된다.
3. 70인역 성경 (Septuaginta)
  - ✓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몇 세대 만에 종교는 지키지만, 언어, 교육, 문화 면에서는 헬라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위해 성서의 번역이 필요.
  - ✓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헬라어 번역. 70인역의 전설. (약 BC 200년경)
  - ✓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번역. 유대인 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읽음.
4.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s)
  - ✓ 이방인으로 구약성서의 가르침으로 회심. 완전한 의미로 유대인이 되지 않았다. 할례 받지도 않고 음식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회당과 연결된 이들.
  - ✓ 헬라어 말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유대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남.

#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

1. 로마는 도시국가, 확장된 도시. 피점령국가와 일련의 조약 맺어 지배

- ✓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조건의 조약.
- ✓ 유대 총독, 갈릴리 분봉왕: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짐.
- ✓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의 심판의 주체는? 헤롯? 빌라도? 가야바?
- ✓ 이런 간접지배 방식 때문에 지중해 동쪽 지역에 라틴어 확산 되지 않음.
- ✓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글씨-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2. 지중해 서쪽 지역 (서유럽 지역)의 특이성

- ✓ 스페인이나 프랑스 골(Gaul) 지방 - 중앙집권적 정부나 문명이 없었다. 따라서 이곳은 식민지화(colonization)이지 정복(conquest)이 아니다.
- ✓ 오늘날 서유럽(지중해 서쪽)은 라틴어 사용. 그 유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 ✓ 로마가 서유럽에서 라인, 다뉴브까지만 간 이유
- ✓ (올리브와 포도주 지역 vs. 맥주와 버터 지역)

# 초대교회는 왜 빠르게 성장했는가?

## 1. 기독교 확장의 전성기

- ✓ 기독교 확장은 로마 공인 이후(313년)가 아닌 박해기에 폭발적 성취
- ✓ 로마의 박해 피하여 피신하여 간 곳에서 교회 세우고 복음전파
- ✓ 상업을 위해 이주해 간 곳에서 개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발전하여 교회
- ✓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놓은 것이 교회로 발전
- ✓ 당시의 교회는 처음부터 특별한 건물을 만들어 세워 교회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 2. 셀수스(A.D. 180년경)의 기독교 확장에 대한 논평

- ✓ “기독교인들이 서로 간에 의견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이들에게 아무런 믿을만한 기본적 토대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경탄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인 소수자들이라는 점에서는 공동의 유대가 있고 외부인들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이들을 단결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 기독교 확산을 집단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스스로 단결하며 자신들을 협공하는 자들에게 공동으로 대처하는 집단 사회적 본능 현상으로 봄.



# 교회 성장의 원인- 인종주의, 민족주의 극복

## 1. 형제애

- ✓ 이방인들의 기독교 수용은 여러 이유에서 발생했지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박애정신.
- ✓ 전쟁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있던 이들에게 기독교의 사랑과 보편적 나눔의 삶은 큰 울림.
- ✓ 빈자들과 과부, 고아에 대한 사랑과 돌봄. 갇힌 자, 유배된 자, 병 걸린 자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이타적 박애정신은 이방인들에게 충격.

## 2. 타자에 대한 수용

- ✓ 여행자들을 대접하는 전통. 교회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
- ✓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원하여 기독교에 입문.
-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노예 해방시켜주고 신앙을 공유하면서 평등 실천.
- ✓ 콘스탄틴은 기독교인 주인이 교회의 감독 앞에서 노예 해방을 서약한 것을 국가 행정부 관리에게 서약한 것과 동일 효력 인정.
- ✓ 3세기 로마교회 감독 칼리스투스 - 해방 노예 출신.

## 3. 오늘의 인종주의와 타자화

# 초대 교회의 박해의 이유

## 1. 로마의 종교관

- ✓ 로마의 종교정책은 타종교에 관용.
- ✓ 판테온 - 점령지역의 신을 기존의 로마가 숭배하는 신들에 편입, 로마이름 부여. 유대교도 관용됨. 왜 기독교인들은 박해?
- ✓ 로마에게 종교는 제국의 일체성과 충성을 제고하기 위한 으뜸이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
- ✓ 종교 행위: 피에타스(pietas, 경건, 충성) - '피에타스에 로마적 의미가 상실된다면, 사회적 일체성과 정의는 함께 무너질 것이다.' (키케로)
- ✓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피에타스가 아닌 수퍼스티티오(superstitio, 미신).

## 2. 로마로부터의 박해

- ✓ 초기 3세기 동안 정기적으로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
- ✓ 엄청나게 확장된 미신 (로마 총독 플리니), 치명적인 미신 (타키투스)
- ✓ 미신: 오늘날 컨텍스트와는 다소 다르게 쓰인다. 낯설고 다른 것,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적 믿음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고대의 관습과 부합하는 경우에 인정.
- ✓ 기독교 혐오는 <사회의 일체성에 해악>이 된다는 관점
- ✓ 박해의 이유: 로마의 가치관에 대한 침해, 대체

# 박해와 성장의 공통 이유

## 1. 사회적 이슈 - 제국과 종교의 긴장

- ✓ 종교의 본질 - 국가 종교 아닌 대안 공동체로서의 역할
- ✓ 국가와 종교의 가치가 일치할 때 교회의 타락 시작
- ✓ 중세교회는 국가와 제도교회가 일치되는 시기
- ✓ 또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 국가주의의 등장

## 2.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의 적응

- ✓ 가톨릭 교회와 성장하는 국민 국가의 갈등 속에 국민 교회로 프로테스탄트 형성
- ✓ 본질적으로 가톨릭 공화국에서 국민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 신학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
- ✓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을 넘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해동포주의)
- ✓ 박해와 성장의 이유 - 문화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인종주의 극복

## 3.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한 코드로 읽기

- ✓ 제도화된 국가교회와 개별 국민 사이의 갈등
- ✓ 가톨릭교회에서 국민 교회로
- ✓ 종교적 경건과 세속의 욕망